

4차 산업혁명 시대 생명윤리정책 사회적 합의 필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원장 이윤성)은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에 따른 생명윤리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4차 산업혁명과 생명윤리' 공청회를 8월 30일 개최했다.

복지부는 올해 '4차 산업혁명과 생명윤리'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유전체기술, 인공지능 등 미래기술에 대한 정책적 이슈에 대한 사회·윤리적 문제를 검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해왔다.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생명과학과 의학의 발전은 윤리적인 고려와 사회적 책임 인식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면서 "공청회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생명윤리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축사에서 "질병극복과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미래기술 개발과 윤리적 측면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상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장은 "과학기술과 윤리의 발전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올바른 방향의 대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4차 산업혁명과 생명윤리정책' 주제로 기초발표를 한 김현철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학기술에 대한 생명윤리적 성찰은 1차적

으로 과학자 스스로 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새로운 과학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생명윤리정책은 연구자 중심의 자율규제 체계 정립과 함께 국가가 자율규제 정착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공동규제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새롭게 발생하는 사회적 쟁점을 다루기 위해서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활성화, 자율규제를 위한 연구자 및 시민의 역량강화 지원, 생명윤리적 기술영향평가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의 생명윤리법을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혜진 기자 hijoo@koreannurse.or.kr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한원곤 원장 취임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제4대 원장으로 한원곤 성균관대 의과대학 명예교수가 취임했다.



신임 한원곤 원장은 9월 1일 취임식을 갖고, 상근으로 3년 임기를 시작했다.

인증원은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원장 후보를 이사회에 추천했으며, 8월 21일 열린 이사회에서 신임 원장을 선임했다.

한원곤 원장은 의료기관 인증제 시행 초기 인증심의위원을 지냈으며, 의료계 안팎에서 인증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인증제 참여 활성화 등을 위한 책임자로 꼽힌다고 인증원은 밝혔다.

정규숙 기자 kschung@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 64조원 편성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올해 대비 11.4% 증가한 64조2416억원으로 편성됐다.

보건복지부는 8월 29일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2018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 규모가 64조2416억원이라고 밝혔다. 정부 전체 총지출(429조원)의 15.0% 수준이며, 복지분야 총지출(146조2000억원) 중에서는 43.9%를 차지한다.

내년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2017년(57조7000억원) 대비 11.4% 증가했다.

이는 정부 총지출 증가율 7.1%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복지분야 전체 총지출 증가율 12.9%와 유사한 수준이다. 회계별로는 예산이 14.3%, 기금이 7.3%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분야가 12.6%, 보건분야가 5.5% 늘었다.

정부는 "보건복지부 예산은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의 출발점"이라며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치매 국가책임제 등 주요 국정과제를 충실히 반영했다"고 말했다.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치매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해 치매지원센터 운영과 치매안심요양

병원 공공사업을 지원한다. 치매 전담형 노인요양시설 32개 및 주간간호시설 37개를 확충하고, 시설 증·개축(86개) 및 개보수(37개)를 통한 치매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의료취약지역 지원, 국가암 관리 확대 및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 등 의료공공성 강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국가암관리 리를 위해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비롯해 소아암 호스피스 전문기관, 암생존자 통합지원센터, 중앙·광역 호스피스센터 운영지원을 확대한다.

의료기관 안전 및 질 관리 차원에서 요양병원 의무인증을 강화하고 중간현장조사 등을 실시한다.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을 통해 신종감염병 확산 방지 및 우선대응에 힘쓰는 등 질병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4차 산업혁명 대비 보건산업 육성을 위해 공공기관 보유 데이터 연계 시스템, 기관 간 분석자료 공유·활용서비스 등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

마이크로 의료로봇 산업 생태계 조성지원 및 해외 ODA 지원센터 구축 등 의료기기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주혜진 기자 hijoo@

보수교육 프로그램 정보안내

대한간호협회 KNA에듀센터
edu.kna.or.kr



이대 간호대학생, 글로벌 간호학생 포럼 개최

이화여대 간호대학 학생들이 주최한 '글로벌 간호학생 포럼(GNSF)'이 8월 9~11일 열렸다.

전국의 간호대학생 75명과 간호사를 꿈꾸는 고등학생 44명이 참가했다.

이번 글로벌 간호학생 포럼(Global Nursing Students Forum)은 이화여대 간호대학 글로벌간호학전공 학생들이 기획하고 주최했다. 5개 팀을 구성해 프로그램 구성부터 연차 섭외, 홍보물 제작, 참가자 모집, 행사 진행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운영했다.

포럼의 목적은 예비 간호사들에게 국내외 건강 이슈와 간호 트렌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간호 리더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는 데 있다.

포럼은 'Engaging tomorrow's global nursing leaders' 주제로 열렸다. 신성례 국제간호협회(ICN) 제3부회장, 간호사 출신

이경희 변호사, 조명선 전 한국국제협력단 ODA 보건전문가 등이 초청돼 특강을 했다.

간호대학생과 고등학생이 팀을 이뤄 토론을 했으며, 논의결과를 담은 포스터를 전시하고 우수팀을 선정해 시상했다. 간호사 수습문제 및 지역격차 해결방안, 간호사의 전문직 이미지 향상 방안 등의 주제가 다뤄졌다.

이화여대 간호대학생들이 준비한 4차 산업혁명과 간호사의 역할 변화, 간호사 3교대 근무 등의 발표를 듣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 간호대학생들이 준비한 다양한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포럼 회장을 맡은 김예은 학생은 "포럼 준비와 진행과정을 통해 의사소통, 협력, 리더십, 창의력 등 글로벌 리더가 갖춰야 할 다양한 역량을 경험해볼 수 있었다"면서 "전국에서 모인 학생들과 함께 간호 현안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게 돼 의미 있고 보람됐다"고 말했다.

정규숙 기자 kschung@

산업안전보건법 핵심내용 담은 리플릿 배포

안전보건공단(이사장·이영순)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산업안전보건법 핵심내용을 리플릿 형태로 제작해 배포했다.

근로자와 사업주용으로 구분해 현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구성했다.

근로자용 리플릿은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현장 안전보건 수칙 10개명 등을 담아 산업안전보건법 상 어떤 권리와 책임이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도록 만들었다.

사업주용은 각 업종별로 사업주가 실천해야 할 안전보건교육 실시 방법과 재해예방활동, 산재발생 시 조치사항 등을 중심으로 제작했다.

안전보건공단은 근로자용 리플릿 1종과 사업주용 리플릿 3종을 전국 지방고용노동공공서비스공단 지역본부·지사를 통해 사업장에 배포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해 누구나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산업안전보건 교육관련 내용을 사업장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 교육가이드북'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교육가이드북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다.

주혜진 기자 hijoo@

간호사만의 특권, RNcard!!

확 바뀐 하나카드로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 첫 결제 후 10,000원 상당의 연회비 지원!
- RNshop에서 첫 결제시 5,000포인트 지급!
- 협회 관련 결제시 20,000원 캐시백!

넬스라이프 www.nurselife.or.kr ☎ 1566-3137

대한간호협회
Korean Nurses Association



국제한간호재단, 페루 도시빈민지역에 희망의 발걸음

국제한간호재단(이사장 김의숙 연세대 명예교수)은 올해 2월부터 '페루 도시빈민지역 여성자립형 건강가족지원센터 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 민간협력 보조금사업이며, 2019년까지 3년간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등으로 인한 가족의 해체, 여성과 청소년 등 취약계층의 인권문제가 심각한 까라비야오(Carabayillo)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여성들이 가족의 건강리더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시키고, 직업자활을 지원한다. 청소년들에게 예방적 건강검진 프

로그램을 실시한다.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이 목표다.

국제한간호재단 출장단은 지난 7월 30일~8월 7일 까라비야오를 방문했다. 이번이 세 번째 방문이다. 정부 관계자, 학생과 교사,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했다.

기아대책 페루지부 및 서울아산병원 의료봉사단과 협력해 무료 건강검진도 실시했다. 주민들의 건강요구도를 조사하고,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손 씻기와 구강관리, 심폐소생술, 가상 음주체험 등 다양한 교육을 진행했다.

정규숙 기자 kschung@

간호사신문		발행인·편집인 김 옥 수 인세인 김 갑 기	
1976년 12월 31일 창간 / 등록번호 : 서울다06368			
◇대한간호협회 (02) 2260-2511 서울시 중구 동호로 314 koreannurse.or.kr		◇간 호 사 신 문 (02) 2260-2571 FAX (02) 2260-2579 독자주소변경 (02) 2260-2571 nursesnews.co.kr	
시·도 간호사회		산 하 단 체	
서울시 (02) 853-5497	충청북도 (043) 272-1573	병원 간호사회 (02) 2261-1711	
부산시 (051) 253-3824	충청남도 (041) 569-6348	보건간호사회 (02) 525-7318	
대구시 (053) 756-8485	전라북도 (063) 255-3390	보건진료소협회 (02) 2296-7677	
인천시 (032) 441-2925	전라남도 (061) 277-2292	보건교사회 (02) 527-3360	
광주시 (062) 227-7561	경상북도 (053) 743-2721	마취간호사회 (010-3103-0748)	
대전시 (042) 535-0739	경상남도 (055) 262-6006	보통심사간호사회 (02) 2263-1959	
울산시 (052) 258-2311	제주도 (064) 747-3811	산업간호사회 (02) 716-9030	
경기도 (031) 252-0351	군 진 (042) 878-4590	가정간호사회 (02) 2267-5688	
강원도 (033) 263-6417		정신간호사회 (02) 425-1271	
		노인간호사회 (031) 750-5980	

취업에 대한 고민 끝~!

간호 1004 모으기

이력서 등록이벤트

RNjob 사이트 접속

이력서 작성 후 등록

상당신청서 제출 또는 직면상담

모바일 문화상품권 지급 (매월말)

모집내용 이력서 등록 및 상담 시 10,000원 모바일 쿠폰제공

지원자격 재취업 및 취업·이직을 희망하는 모든 간호사

모집기간 '17.8.21 ~ ※ 1,004명 등록 시 조기마감

문의사항 ☎ 1522-1755 또는 공식홈페이지 (<http://www.mjob.or.kr>) 참조

권역안내

서울·강원	02-2268-2631~3	부산·울산·경남	051-442-3824	경기	031-302-9504
대구·경북	053-756-8487	대전·충북·충남	042-825-0749	인천	032-441-2926
광주·전북·전남·제주	062-222-5025				

*상담시간: 평일 오전 09:00~18:00 / 주말 및 공휴일은 휴무